

##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성과경로 분석

김정태 · 정남수\*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전공 · \*공주대학교 지역건설공학전공

# An Analysis of the Performance Paths of Rural Area Revitalization Project: Focusing Eup-Myon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ject

Kim, Jung-Tae · Jung, Nam-Su\*

*Dept. of Regional Development, Kong Ju Nat'l Univ.*

*\*Dept. of Rural Construction Engineering, Kong Ju Nat'l Univ.*

**ABSTRACT** : This paper considers the effect of “comprehensive rural community improvement project” in terms of three factors - physical environment, rural tourism, socioeconomic and analyzed the path effect leading to the final outcome -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using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By doing so, this study looks into why residents prefer the improvement of a physical environment that takes a public nature.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socioeconomic effect did not have an immediate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t a significance level of 5%, whereas the improvement of physical environment had a static effect on the quality of living at a significance level of 1%. Residents’ preference for “hardware” or physical environment may be attributed to lack of their understanding of human factors such as social capital. However, analyzing the impact of specific contents of the project on performance, it is found that as projects fail to generate a tangible socioeconomic effect, residents strategically prefer the repair of their physical environment such as public facilities that directly affect their daily lives, so that they can maximize an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ving. H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instead of attributing the failure of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to residents, macroscopic problems of rural communities and specific contents of projects should be dealt with before the success of any project can be discussed.

**Key words** : Rural Development, Physical Environment, Path Analysis.

## I. 서 론

본 연구는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개발사업의 성과경로와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초생활중심지와 마을과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등의 시행에 맞추어 읍·면소재지의 다양한 중심지기능의 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3년 이후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후 두드러진다. 마을단위의 사업비는 최대 60억에

서 10억으로 축소되고, 2019년 현재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군청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면소재지를 거점으로 하는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최대 180억, 60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MAFRA, 2017).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은 소득, 고용과 같은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면서, 주민역량 등의 사회자본 등의 요소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Park·Seo, 2014; Kim·Lowe, 2012; Lee, 2012). 그러나 재무적 성과평가방법은 비즈니스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경영자에게 충분한 성과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Park et al., 2013: 43).

특히 고용과 소득 같은 재무성과정보는 객관적으로

Corresponding author : Jung, Nam-Su

Tel : +81-41-330-1265

E-mail : ruralplan@kongju.ac.kr

측정되지 않는 한계를 양는데,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연구내용의 한계로 제시된다(Kim, 2015: 82; Cho, 2009: 123). 뿐만 아니라, 주민이 인지하는 집합적 효능감은 주민역량의 발휘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Kwak, 2008: 64),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사업과 관련한 사회자본 활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사업성과를 살피는 작업은 주민역량부족 등의 해결방안 제시에 앞서 살펴져야 한다.

정부지원 재정사업은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연차별 계획에 따른 순차적 접근이 일반적이다.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의 근거법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MAFRA, 2015), 공통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시행지침(2017)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부목적과 방법으로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를 제시한다(MAFRA, 2015: 1106). 즉 삶의 질 향상을 최종목적으로 소득과 기초생활수준, 인구유지, 지역별 특화발전을 세부목적으로, 어메니티 증진과 계획적인 개발은 방법으로 제시된다.

세부목적들은 기능별사업에 직접적으로 명시되거나, 몇 개의 기능별 사업들의 종합화된 형태로 세부목적을 반영하는데, 각 세부목적들은 시차를 두고 진행되면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최종성과를 삶의 질로 보고 각 기능별 사업들의 작용형태를 통해 성과경로를 살피는 본 연구는 중심지활성화사업 본래 목적과 접근방법에 근거한 보다 타당한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개발사업에 활용되는 세금의 공여자와 수혜자가 다른 재원의 이중성 문제(Le-Yun, 2008: 98) 농촌개발사업의 성과평가는 주로 재무적 관점이 중심이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이 완료된 38개 전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성과경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업내용측면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경험적 논의를 통해서 볼 때 농촌관광은 방문객 증가 등을 통해 소득과 고용, 농촌인구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중심지기능을 강조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능이 중심지사업에서 타당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나, 그간의 연구에

서는 계획요소로 접근되거나(Do-Suh, 2016), 사회경제적 효과로 취급되어(Kim, 2017), 그 타당성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농촌관광을 포함한 농촌개발사업을 구성하는 각 기능별 세부사업들의 유기적인 성과경로 효과의 규명은 투입변수와 성과변수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제공하지 못하는 단계별 사업효과의 흐름을 구체화시켜, 정부가 설정한 세부목적별, 그리고 목적 간 연결과정의 타당성 파악에 기여하며, 향후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 시각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세부목적과 과정의 합리성을 파악할 수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개선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검토

농촌개발사업의 성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들은 크게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를 고려한 연구들(Kim, 2017; Yang-Choi, 2013; Cho, 2009)과 고려하지 않은 연구들(Kim-Lee, 2014; Lee, 2012; Chai-Seo, 2011; Kim-Chai, 2011; Lee-Lee, 2011; Kim-Lee, 2011; KRC, 2008; Song-Seong, 2005; Kim, 1982)로 구분해 볼 수 있다.

Yang-Choi(2013)의 연구는 2010년까지 추진된 56개 권역을 대상으로 조사된 258부를 이용하여, 추진단계를 소득사업의 변경, 도입과정, 준비, 계획, 추진영향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사회자본 요소와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Cho(2009)는 구례 방광권역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사업의 추진과정을 반영과정, 실시설계 및 설치단계, 운영과정, 최종성과(기업유치, 고용창출, 매출, 주민소득, 방문객 증가 등)로 구분하고, 주민소득사업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체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각 주민소득사업의 추진단계에 자치규약 제정, 권역주민 참여 등의 요소의 활용과 성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두 연구는 소득사업과 관련된 각 단계별 사회자본 요소 등의 올바른 적용방안은 제시하지만,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의 목적과 각 단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작용하는가는 설명하지 못한다.

Kim(2017)은 농촌개발사업을 물리적환경과 사회경제 효과로 구분하고, 삶의 질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 본 연구와 비슷한 시각으로 접근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농촌개발사업이 거양하고자 하는 인구유지, 소득, 고용 등의 핵심적 목표들을 지지하는 수단인 농촌관광을

고용, 소득 등의 사회경제효과의 범주로 포함시켜 접근하고 있는데, 농촌개발사업은 농촌관광을 활성화시켜, 고용과 소득 등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고려되지 못한다. 무엇보다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서 농촌관광이 타당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한적이다.

추진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는 투입변수와 성과와의 관계에 집중하거나(Chai-Seo, 2011; Kim-Chai, 2011; Lee-Lee, 2011; Kim-Lee, 2011; 한국농어촌공사, 2008; Kim, 1982), 사회자본 요소를 변수로 성과가 발생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들(Kim-Lee, 2014; Lee, 2012; Song-Seong, 2005)로 구분된다.

우선 투입과 성과변수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Kim-Chai(2011)은 2010년을 기준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36개 권역 중 10개 권역 458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로짓모형으로 분석한다. 마을경관요인과 역량강화요인이 개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여려준다. Chai-Seo(2011)은 전남지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3개 권역 151명 자료를 이용하여, 주민만족도와 농가소득에 사업유형, 사업지역 특성, 주민 참여 유형 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두 연구의 공통점은 농촌개발사업으로 마련되는 각 시설들의 만족도를 요인 분석하여, 생활편의, 소득기반, 경관조성, 역량강화요인으로 설정하고, 성과는 1차적 효과(객관적 효과)인 소득, 2차적 효과(주관적 효과)인 주민만족도로 구분한다.

이러한 점은 농촌개발사업으로 마을에 투입되는 요소를 물리적 시설과 역량강화 요인으로 구분한 것이며, 성과는 물리적시설, 역량강화요인을 활용하여 창출되는 소득(1차)의 파급효과로 주민만족도(2차)를 설정한다. 이 같은 단계설정은 농촌개발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역량(투입)⇒소득(성과1)⇒주민만족도(성과2)’의 유기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과분석은 시설이 소득, 주민만족도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 단계별 효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Kim-Lee(2011)는 2000년, 2005년 어가단위 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해체기법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전후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성과지표인 수산물판매액 증대에 준 영향은 모호하나, 어업외소득 기회확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Lee-Lee(2011)는 신활력사업, 재촉지구사업, 지역특구사업,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한 기초생활권 125개 기초생활권 지역을 대상으로 상대적격차지수로 시·군별 주민세, 산업종사자 수를 사업전·후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지역소득, 고용창출에 효과가 없음을 제시한다.

두 연구는 투입변수와 성과변수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성과가 발생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또한 Kim-Lee(2011)의 연구결과 중 어업외소득의 기회확대가 소득에 준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 농촌지역은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상황에 직면한 곳이 많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비는 시·군 평균예산규모의 0.83%에 불과

Table 1. Performance-related studies

Process	Researcher	Research Focus
Consideration	Kim(2017)	Relationship between ProcessPhysical Environment and Social Economic Effects
	Yang-Choi(2013)	Relevance of Social Capital Elements in each Stage
	Cho(2009)	Activities of self-governing conventions, etc. by the stage of implementation
Not Consideration	Kim-Lee(2014)	Current status of cooperative plan divided into three groups: upper, middle, and lower.
	Lee(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nd Social Capital on the Basis of Community and Economicity
	Chai-Seo(2011)	The Influence of Business Types, Characteristics of Business Zones and Participation Type of Residents on Residents' Satisfaction and Farm Household Income
	Kim-Chai(2011)	The Influence of Village Landscape Factors and Capacity Enhancement Factors on Personal Income
	Lee-Lee(2011)	Analysis of the population tax by city and county and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before and after business as the relative difference index
	Kim-Lee(2011)	Effects of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on Fishery Income
	KRC(2008)	Aggregation of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population growth rate
	Song-Seong(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Level and Business Performance
Kim(1982)	The Influence of Irrigation Facilities on the Social Indicators of Humanity, Public Order, Community Satisfaction and Education among Residents	

하다. 따라서 시군에 미치는 양적효과가 저하된 경우, 시군 내부효과에 포섭되어, 성과가 있어도 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Kim, 2015: 82). 이러한 논거를 따르면, LeeLee(2011)의 연구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KRC(2008)는 2005년 착수된 36개 전체권역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율, 법인소득 증가액, 방문객수 증가, 역량교육 참여횟수, 친환경면적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56명을 대상으로 설정된 지표를 집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Kim(1982)은 관개시설이 확충개선된 90개 지역 540명을 대상으로, 관개시설이 주민 간 인심, 공공질서, 지역 사회 만족, 교육 등의 사회지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교통, 시장조건과 같은 물리적 환경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동네인심, 공공질서와 안녕, 친족 간 상호작용, 주민들의 지역사회참여, 여가활동과 휴식, 지역사회 전반에 관한 만족도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Kim(1982: 52)은 눈에 바로 보이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주민들이 바로 인식하면서도, 사회적 조건이나 개인생활의 변화는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올 수도 있고, 관개시설에 따른 농업조건 개선과 환경이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보다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으로 해석한다(Kim, 1982: 52). 이 연구는 농촌개발사업의 성과를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하며, 물리적 환경보다 사회적 환경의 효과가 높게 발생됨을 추론한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개발사업을 물리적환경조성, 이를 활용한 사회경제적 효과로 구분한 연구와 동일한 관점이며(Kim, 2017), 사업성과는 물리적 효과에서 시작되어 사회경제적 효과로 파급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회자본 요소를 투입변수로 성과가 발생하는 과정들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들 중 우선 KimLee(2014)의 연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36개 권역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한 준공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중위, 하위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협력적 계획의 실태를 경로분석으로 분석한다. 협력적 계획과정은 추진협의체, 의사소통 채널, 참여주체 간 상호작용, 사회학습과정, 합의형성과정으로 구분하고, 협력적 계획의 효과는 지역 사회 자본형성, 합의도출 및 합의이행을 성과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각 설문부수는 상위 147명, 중위 154명, 하위 146명이며, 각 그룹별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사회학습 과정과 참여주체 간 상호작용이 가장 효과가 크며, 이러한 경향은 상위지역일수록 그 효과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준공평가 지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순 없지만, MAFRA(2010)의 농촌개발사업 성과지표 개발연구에서 제시된 지표로 추론해 보면, 재무적 관점

의 지표는 매출성장률, 경제적 부가가치, 총 방문객, 마을인구증가, 마을가구증가, 방문객 소비액, 농·특산물 판매, 음식판매, 체험활동매출, 사업소득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프로세스 관점은 소득증가율, 참여자 수 등, 학습과 성장은 방문객 수, 방문객 수 증가율, 고용증가율 등이다. BSC와 KPI 관점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표 대부분은 경제적 성과평가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준공평가 결과는 주로 재무적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론을 근거로 살피면, KimLee(2014)의 연구는 재무적 지표중심으로 구분된 권역 간의 특징을 사회자본 요소로 해석한 것이다.

Lee(2012)는 공동체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성과지역 2개 권역, 비성과지역 2개 권역을 대상으로 조사된 124명 자료를 분석한다. 성과는 전체평가, 개인이익평가, 마을발전평가, 사업성과 종합평가로 구분하고 분석하여, 경제적 이익, 공공리더십, 호혜성 요인이 농촌개발사업 성과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임을 제시한다.

Song-Seong(2005)은 1999-2003년 사이에 마을개발사업이 진행된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6개 지역은 지도자만을, 14개 마을에서는 주민만을 조사하여 총 134명의 자료를 분석한다. 사업성과는 경제적 효과(토지가격상승, 손님증가, 농산물판매 수입증가, 공동시설 운영을 통한 소득증가), 비경제적 효과(활력증가, 개인적 보람, 갈등 등)로 구분하고 두 효과의 합산점수를 사업성과지수로 설정한다. 참여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67로 참여수준과 마을사업의 성과 간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나, 상관관계는 관련성은 제시하지만,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적 이익이 있을 때, 참여수준이 높아지는 관계는 설명해주고 있지만,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이 연구는 사업진행단계를 착수, 계획, 시행, 운영단계로 구분하지만(Song-Seong, 2005: 308), 분석에서는 사업추진단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 연구들(KimLee, 2014; Lee, 2012; Song-Seong, 2005)은 사회자본 요소를 투입변수로 완료된 단계에서 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한다. 사회자본과 관련된 투입변수를 활용하여, 성과에 사회자본 요소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살필 순 있지만,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각 투입요소는 다를 수 있으며, 같다 해도 그 효과정도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단계가 생략된 투입-산출의 관계규명은 분석하는 단계에서 각 영역이 직접적으로 성과에 주는 관계만을 규명하기 때문에 성과가 창출되는 흐름을 무시할 경우, 가령 어느 한 과정에서 성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후 단계에서의 사회자본 요소의 영향력은 없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과가 창출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자본 등의 주민역량, 사업진행과 관련된 규약 등을 변수로 활용하거나, 사업 전·후의 성과지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성과지표는 소득, 고용과 같은 재무적 지표를 중심으로 투입변수와 성과변수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농촌개발사업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사업으로서(Kim-Chai, 2011: 2675) 사업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면 다양한 목적이 담겨있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소득, 고용 등을 최종성과물로 설정하면, 사업이 갖는 다양한 목적은 간과되고, 그 효과는 제외되어 사업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

상향식 농촌개발정책이 추진되었던 동 기간 진행된 삶의 질 향상계획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도·농간에 체감도 높은 기초인프라 시설의 격차가 여전하다(Sim et al., 2014: 58-64). 또한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데(An-Lim, 2014), 농촌지역은 생활체육시설, 복지관 등의 공식적 사회기반시설이 불충분하다(Park et al., 2015: 202).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기초생활수준의 향상은 시행지침에 반영된 하위목적으로서(MAFRA, 2017),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효과가 그간 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업추진단계를 고려한 연구들(Yang-Choi, 2013; Cho, 2009)도 소득사업에 주목하고 있어, 다양한 목적이 고려되지 않으며, 그마저 각 단계별로 사회자본 등의 투입변수의 작용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주민역량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정부정책이 갖는 문제점은 파악하기 힘들다. 학습을 통한 주민역량을 강조하는 내발적 논의(Kim, 2009)에 충실한 모습이나, 책임소재를 주민에게 전가할 위험성을 안는다. 그리고 물리적 시설의 마련과 이를 활용한 인구증가, 소득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의 발생과 이를 통한 삶의 질에 이르는 사업단계별 목표와 각 세부사업 목적별 유기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설정한 성과경로와 각 세부목적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설계의 타당성은 주민의 책임에 앞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정책은 집행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 단계별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또는 목적대로 수행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고, 더욱이 후속단계의 정책집행이 전단계의 성공적인 완료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Lee, 2010: 281).

이 같은 시도는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세부사업들의 목적과 각 세부사업의 영향관계를 구체화시켜,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농촌개발사업이 전개되는 단계별 문제를 보다 분명히 하고, 개선방

향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III. 연구모델 및 분석방법

#### 가. 연구자료

분석 자료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된 38개 전 권역의 추진위원장, 이장 등의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된 자료로, 자료선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57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구조는 38개 권역, 15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권역별 설문응답자의 최소최대값은 각 1명, 11명으로 자료범위는 넓으나, 권역 당 평균 응답자는 4.5명, 표준편차는 1.8명, 최빈값이 4명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권역별로 고르게 조사되어 있다.

Table 2. Data structures

Region	38
Questionnaires	157
Mean	4.1
S.D	1.8
Mode	4
Minimum	1
Maximim	11

조사대상지역에서 추진된 사업은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이관된 소도읍육성사업(2002-2012)과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2007-2012)으로 추진된 사업들이다. 두 사업은 목적과 사업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유사사업으로 특징되어 통합대상사업으로 줄곧 논의되고 통합된 사업으로 동일한 목적과 내용으로 진행된 사업이다(Kim, 2015: 83).

분석 자료는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사업성과를 살피기 위한 자료로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이 인식하는 성과평가에 대한 것으로 9개 분야(경관개선(경관개선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생활편익(문화, 예술, 복지 등의 서비스기능이 확충되어 생활편익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증가(정주환경이 개선되어 인구유입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또는 인구 감소율의 둔화), 휴식공간확충(쉼터, 공원 등이 조성되어 휴식공간이 확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전통재래시장, 향토시장 등 지역경제기반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증가(일자리가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문객 증가(방문객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시설 이용횟수(복지시설 등을 이용하신다면 월 평균 몇회 이용하십니까?), 문화프로그램 지원(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구분되고 조사되었다.

조사된 성과지표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추진되는 기능별세부사업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증가의 설문문항은 사업으로 인한 2차적 효과를 묻고 있다.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각 기능별 영역으로 구분된 지표로 반영되어야 하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능별 사업별 세부내용들은 상호보완적으로 2차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기능한다. 따라서 각 기능별 세부사업 및 세부사업별 각 시설들이 소득 또는 만족도 각각에 주는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해당시설이 복합적으로 활용됨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다.

본 연구는 공변량구조분석으로 경로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Table 3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향토시장정비 등과 같은 시설들의 복합화된 효과는 삶의 질에 주는 경로를 재설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조사항목 중 복지시설 이용횟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지원정도는 설문내용 의미로 볼 때, 생활편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두 항목을 제외한 7개 분야를 농촌개발사업 세부목적으로 보고 각 항목별 평가점수는 주민이 인식하는 사업부문별 성과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농촌개발사업에서 차별화의 의미는 사업을 통해 사업대상지역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농촌개발사업의 종합적 성과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Kim, 2015: 81). 최종성과변수인 삶의 질은 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수준으로 조사된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Kim·Chai(2011), Chai·Seo(2011)의 연구에서 밝힌 주민만족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 나. 성과단계와 기능

Yang·Choi(2013)는 ‘소득사업의 변경, 도입과정, 준비, 계획, 추진영향요인’, Cho(2009)은 ‘소득사업 반영과정, 실시설계 및 설치단계, 운영과정, 최종성과’, Song·Seong(2005)은 ‘착수, 계획, 시행, 운영단계’로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를 구분한다. 공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 단계는 과정별 특징된 업무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주민시각에서 운영되는 과정은 알 수 있으나, 예산의 투입이 고려되지 못하나, 정책이 집행되는 일반적 과정인 ‘Input(투입)⇒활동(Implementation)⇒산출(Output)’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적으로 정책사업의 투입은 예산인데, 농촌개발사업은 권역별 투입된 예산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투입변수를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Kim·Chai(2011), Chai·Seo(2011)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투입변수로 마련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생활편의, 소득기반, 경관조성, 역량강화’로 설정하고, 성과는 소득(1차), 주민만족(2차)으로 구분한다.

농촌개발사업에서 체험, 민박 등을 통한 농촌관광은 소득과 고용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강조되어 왔다. 6차 산업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여전한데(Park, 2015; Yoo·Ryu, 2015; Jang, 2015; Choi et al., 2014), 농촌관광은 농산물판매를 위한 미끼상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체험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거점면 개발사업에서도 농촌관광을 위한 계획과 시설들이 많이 고려되었다(Do·Suh, 2016: 47).

그런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기능별사업과 설치되는 시설과 내용을 보면(Table 3.참조), 경관개선의 가로경관정비, 간관정비 등의 효과는 결과적으로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발생된다. 기초생활기반확충의 도시계획도로, 공용주차장, 근린공원조성, 소득중대부문의 재래시장현대화, 향토시장정비 또한 동일하다. 따라서 각 기능시설들은 각 기능별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각 기능시설별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Table 3. Eup · Myon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ject

Function Project	Detail Project	Project Contents
Basic life based expansion	Traffic	City planning road, Public parking, Housing environment et al.
	Welfare	Library, Town Hall, Health Care Facilities et al.
	Culture	Outdoor theater, Playground et al.
	Leisure	Sports Facilities, Park et al.
Income Increasing	Income	Market Modernization, Local Market Maintenance et al.
Landscape Improvement	Views	Landscape Planning, Landscape Maintenance, Sign Maintenance et al.
Empowerment	Education	Training, Excursions, Leader Cultivation et al.
	Promotion	Homepage, Local Festival, Facility Management Program et al.
	ETC	Cultural Property Indicators survey, Pre-Environmental Review et al.

Source : MAFRA(2013), p.1385.

Kim·Chai(2011), Chai·Seo(2011)의 연구는 투입되는 시설변수와 성과변수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각 세부사업 목적들 간의 단계별 영향 관계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갖는 시설들의 구분이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준 하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투입변수는 기반정비, 역량강화 구분한다. 기반정비는 사업을 통해 해당지역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총합을 의미한다. 역량강화사업은 마련된 시설의 운영관리, 지역에 대한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그 효과가 성과에 반영된다. 성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농촌관광으로 설정하였다. 성과는 선행연구들과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소득, 고용, 인구유지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효과(1차 효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2차 효과)로 Figure 1과 같이 농촌개발사업의 단계와 주된 목적으로 구분하였다.



Figure 1. The Stages and purpose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 다. 연구모델

Table 1은 측정된 성과변수를 요인 분석한 결과이다. 1성분은 일자리증가, 인구증가, 지역경제활성화, 2성분은 경관개선, 휴식공간확충, 생활편익향상으로 구분된다. 2 성분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마련되는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반조성으로 명명하였다. 1성분은 기반조성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들로 구성되어 사회경제 효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Kim·Chai(2011), Chai·Seo(2011)의 구분과 동일한 구분방식이다.

그런데 방문객 수 증가의 요인부하량이 1성분 0.580, 2성분 0.553으로 분석되었다. Hair et al.(2006)의 요인수의 선택기준에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0.5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방문객 수 증가는 두 성분 모두에 속한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농촌관광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1차 효과(사회경제효과), 2차 효과(삶의 질)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핵심수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감안하여, 방문객 수를 농촌관광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방문객 수는 농촌관광 활성화 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품 등의 판매에도 기여할 수 있어, 기반조성

을 통해 마련된 시설들을 소득, 고용 등의 사회경제효과를 발생시키는 수단으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	Component	
	com. 1.	com 2
Employment Growth	0.862	0.143
Population Growth	0.792	0.271
Region Economic Promote	0.694	0.124
Visitors Increase	0.580	0.553
Views Improvement	0.177	0.846
Lounge area Expansion	0.096	0.776
Living Benefits	0.304	0.75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기반조성(Hardware) ⇒ 농촌관광(Rural Tourism) ⇒ 사회경제효과(Socio-economic) ⇒ 삶의 질(Quality of Life)」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정하고, Figure 2의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_1$  : 기반조성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Yoon·Park(2012)은 지역개발을 통해 형성된 만족도 차원은 생활환경, 지역경제 및 고용부문 등의 3개 부문으로 형성됨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거는 지역개발의 효과에서 생활환경개선이 중요한 부문임을 보여준다. 또한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은 소득기반보다 오히려, 기초생활여건의 향상에 관심을 더 두고 있다(Choi, 2014; Jang·Chai, 2010). Kim·Lee(2011: 20)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76개 권역을 분석한 연구에서 소득기반, 농촌관광, 환경시설 등은 공통적으로 감소하고, 문화복지, 운동·휴양 부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득, 고용과 같은 재무적 지표만으로 농촌개발사업을 판단하면, 기반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효과가 간과될 수 있으며, 생활여건개선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H_2$  : 기반조성은 농촌관광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농촌관광상품 선택에 시설 및 환경은 여행객의 만족감 형성에 영향을 주며(Kang·Sohn, 2015), 체험객의 만족은 재방문을 높인다. 이러한 논거를 따르면 농촌개발사업으로 개선된 생활환경과 농촌관광을 위한 시설들은 방

문객 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H_3$  : 농촌관광은 사회경제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촌관광은 농업의 소득의 중요한 원천이다. 따라서 농촌관광의 활성화로 인한 방문객 수 등의 증가는 체험 소득, 지역 내 농산물 및 가공품 등의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고용, 소득 그리고 이를 통한 운영시설과 지역경제 고용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H_4$  : 사회경제효과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농촌주민의 삶이 질에 고용, 소득과 같은 경제활동(Choi-Shin, 2016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농촌관광을 통해 발생하는 고용, 소득의 증가는 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과정에서 각 세부목적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Figure 3, Figure 4과 같은 부분매개모델(대안모델1), 완전매개모델(대안모델2)를 설정하였다. 또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내용 중 향토시장정비, 도시계획도로, 방문객용주차장 등은 농촌관광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사회경제효과로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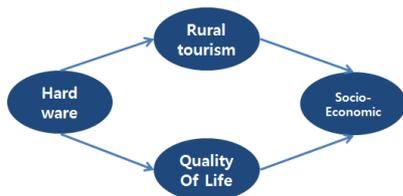


Figure 2. Resear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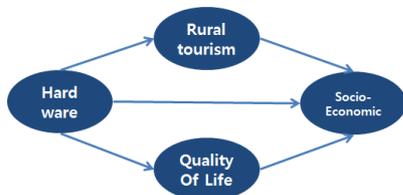


Figure 3. Alternative Model1



Figure 4. Alternative Model2

#### 다. 분석방법 및 과정

분석은 각 성과지표 문항 간의 공분산 점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공변량구조분석은 연속변수의 정규분포를 가정하며, 일변량정규성과 다변량정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은 자료검토를 하지 않은 채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변량구조분석은 동시추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표준오차 및  $x^2$ 가 정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line(2005)의 기준(왜도>3, 첨도>10)으로 일변량정규성을 살핀 결과 일차리증가(왜도=0.292, 첨도=-0.121), 지역경제(첨도=-0.372)가 위배되었다. 다변량정규성은 상대적 다변량척도가 1.104로 측정되어, Bentler(1988)의 기준(RMK<3)을 만족하나(Bae, 2014), 각 설문문항을 대상으로 한 결과 휴식공간(z-value=-3.757, p=0.000)은 왜도, 생활편익(Z-value=-1.959, p=0.050)은 첨도에서 기준에 위배된다. 따라서 분석자료가 다변량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자료를 정규점수(normal score)로 전환한 다음, 정규점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Bae,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srel 8.72을 이용하여 분석 자료를 정규점수(Normal Score)로 변환 후 분석하였다. 또한 관측변수와 설문부수는 Jöreskog & Sörbom(1989)의 기준에 따르면 관측변수<12이면 적어도 200부는 되어야 하고,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해야 함을 적용하여,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최종성과인 주민 삶의 질 수준, 농촌관광활성화 두 개념은 단일지표로 설정되어 분석과정에서 관측변수 오차를 0으로 고정하였다.

분석과정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확인을 위해 확정적 요인분석과 평균분산추출을 통해 개념타당도를 살핀 후, 가설검증을 위한 경로효과를 분석하였다.

## IV. 분석결과

### 가. 개념타당도 분석

Table 3은 Table 2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와 모델설정 논의의 바탕으로 기반조성, 농촌관광활성화, 사회경제효과, 삶의 질의 각 개념과 관측변수들을 연결한 가설구조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확정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요인분석은 단순히 변수 간 관련성이 높은 변수들을 묶어, 이론적 혹은 경험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절대적합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x^2=24.300(df=16, p=0.0831)$ ,  $RMSER=0.062$ ,  $GFI=0.957$ ,  $RMR=0.038$ 로 분석되어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충족한다. 증분적합지수( $NFI=0.96$ ,  $CFI=0.98$ ,  $RFI=0.93$ ,  $IFI=0.98$ )의 모든 항목도 판단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기준치를 상회한다.

간명적합지수인 PNFI는 0.55로 일반적인 기준치 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나, 간명적합지수의 수용 가능한 적합도 수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Bae, 2014: 208). 이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각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농촌관광과 삶의 질 개념은 각 방문객 수와 차별화 수준의 단일문항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와의 요인적재량이 각 0.966, 0.949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회귀경로의 강도가 매우 높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각 개념에 포함된 관측변수들이 단일요인모델에 의해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여주는가를 분석한 단일차원성 검증은 개념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지표의 내적일관성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기반조성( $CR=0.792$ ), 사회경제효과( $CR=0.739$ )로 일반적인 수용조건인 0.7을 모두 넘는다. 이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의 기반조성과 사회경제효과에 활용되는 관측변수의 내적일관성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또한 잠재변수에 대해 관측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 분

산의 크기를 살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결과는 기반조성 0.591, 사회경제 0.521이다. 일반적인 평균분산추출은 0.5이상이 기준으로 활용되어(Bae, 2014), 관측변수가 설명하는 잠재변수의 분산은 양호하다. 농촌관광과 삶의 질 수준은 오차분산을 0으로 고정하고, 단일문항으로 설정되어 개념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정도를 확인할 순 없지만, 확정적 요인분석의 결과(Table 3)와 Figure 5에서 보듯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와의 요인적재량이 각 0.966, 0.949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다른 개념과 관측변수의 관계에서 보이는 회귀경로의 강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관광과 삶의 질을 파악하는 관측변수인 방문객 수와 차별화 수준의 단일차원성이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가 설정한 잠재변수와 각 잠재변수별 관측변수 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가 설정한 모델 및 가설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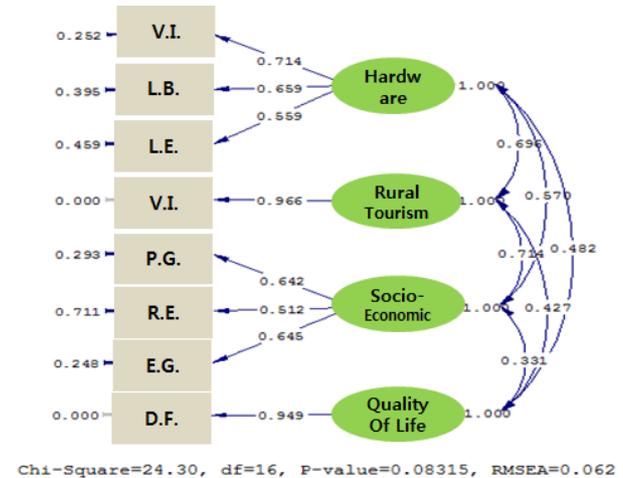


Figure 5. The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able 3. Results of the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fit.

Absolute Fit Index	Stand.	Estimates	Incremental Fit Index	Stand.	Estimates	Parsimonious Fit Index	Stand.	Estimates
$x^2$	$P>0.05$	24.300(df=16, p=0.0831)	NFI	$\geq 0.9$	0.96	PNFI	$\geq 0.6$	0.55
GFI	$\geq 0.9$	0.96	CFI	$\geq 0.9$	0.98			
RMR	$\leq 0.05$	0.038	RFI	$\geq 0.9$	0.93			
RMSEA	$\leq 0.08$	0.062	IFI	$\geq 0.9$	0.98			

Table 4. Results of construct reliability and average variance extracted

Concepts	Standardized estimates	Standard Error	Error Variance	Z-Value	CR	AVE
<b>Hardware</b>						
Views Improvement	0.818	0.331		10.408	0.792	0.591
Living Benefits	0.724	0.476		8.919		
Lounge area Expansion	0.636	0.595		7.590		
<b>Rural Tourism</b>						
Visitors Increase	1.000	-	-	16.462		-
<b>Socio-Economic</b>						
Population Growth	0.765	0.415		9.414	0.739	0.521
Regionr.Economic Promote	0.519	0.731		5.895		
Employment Growth	0.792	0.373		9.814		
<b>Quality of Life</b>						
Differentiation	1.000		-	16.492	-	-

나. 모델평가

제안모델을 바탕으로 대안모델1과 대안모델2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이다. 3가지 경쟁모델은 서로 내포되어 있어  $\chi^2$ 검증이 가능한데, 카이제곱분포표로 확인한 결과 연구모델과 대안모델1과의  $\chi^2$ 값의 차이는  $\Delta\chi^2=1.439$ ,  $\Delta df=1$ 로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연구모델과 대안모델2의  $\chi^2$ 차이검증도  $\Delta\chi^2=2.152$ ,  $\Delta df=2$ 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 차이가 없다. 이상의 결과는 3가지 경쟁모델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안모델1처럼 「기본조성→사회경제」 경로를 제외하면 삶의 질 효과의  $R^2$ 는 대안모델2에 비해 소폭 증가한다. 반면 대안모델2의 「농촌관광활성화→삶의 질」의 경로가 추가되면,  $p<0.05$  수준에서 유의수준은 없으나, 사회경제효과의  $R^2$ 가 52.0%로 상승한다. 또한 대안모델2는 농촌관광활성화와 사회경제효과의  $R^2$ 값이 상승한다. 두 모델 모두 각 모델의 적합지수 또한 크게 변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쟁모델별 유의수준이 확인되는 경로는 모두 동일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와 연구목적을 반영하여, 부분매개모델인 대안모델1보다 완전매개모델인 대안모델2를 최종가설검증을 위한 모델로 결정하였고, 가설 $H_5$ (기본조성은 사회경제효과에 정(+))의 효과를 준다)와 가설 $H_6$ (농촌관광활성화는 삶의 질에 정(+))의 효과를 준다)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다. 경로분석

(1) 가설검증

Figure 6은 대안모델2 분석결과를 도식화한 결과이다. 「가설 $H_1$ : 기본조성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0.358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농촌개발사업으로 투입되는 각 시설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 객관적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Kim(2017)의 연구와 같이 그간 소득과 고용 등의 경제적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농촌개발사업을 평가하는 시각이 간과한 숨은 효과를 찾은 의의가 있다. 따라서 주민 삶의 질 개선효과가 성과논의에서 제외되어 농촌개발사업이 갖는 효과가 상당부분 간과되어 왔음을 보여주며, 추후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조성으로 향상된 생활환경이 주민의 삶의 질에 주는 효과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각 세부기능별 목적들은 경관개선 0.714( $p<0.01$ ), 생활편익 0.659( $p<0.01$ ), 휴식공간 0.559( $p<0.01$ )으로 분석되었다. 각 기능별 목적들이 삶의 질 향상에 주는 효과는 경관개선 0.256 (0.714\*0.358), 생활편익 0.236(0.659\*0.358), 휴식공간 0.200(0.559\*0.358)로 분석되어 경관개선이 주는 효과가 가장 크고, 생활편익, 휴식공간의 순이었다.

「가설 $H_2$ : 기본조성은 농촌관광에 정(+))의 효과를 줄 것이다.」의 추정치는 0.696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가설 $H_3$ : 농촌관광은 사회경제 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도 추정치

0.615( $p < 0.01$ )로 분석되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이 사회경제효과를 위해 농촌관광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거점면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된 시설의 용도를 살핀 결과 농촌관광을 위한 시설계획이 많음을 제시하는 DoSuh(20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가설  $H_4$ : 사회경제효과는 삶의 질에 정(+)의 효과를 줄 것이다.」의 추정 값은 0.000이며, 유의수준 5% 수준에서도 유의미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기반조성  $\Rightarrow$  농촌관광활성화  $\Rightarrow$  사회경제효과」로 이어지는 기대심리는 크지만, 실제 주민은 「기반조성  $\Rightarrow$  농촌관광활성화  $\Rightarrow$  사회경제효과  $\Rightarrow$  삶의 질」에 이르는 효과경로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개발사업으로 지역의 인구증가,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커 각종 시설 등의 활용도 이를 고려한 접근이 많았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효과가 낮아 정책신뢰도를 낮추고 정책불응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경제효과를 구성하는 세부기능 중 인구증가의 추정 값은 0.642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의미가 없다. 주민은 읍면대상의 사업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로 보고 있을 뿐, 인구증가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사업성과는 인구감소율이 둔화된 정도(Kim et al, 2011; MAFRA, 2010)로 제시되며, 그 마저 지역별 편차가 큼을 보여준다. 정책사업은 정책대상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기보다 성공사례수준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과를 Kim(1982: 52)의 논거로 풀이하면, 기반조성의 효과는 시각 등의 생활과정에서 바로 인식되는 반면, 사회경제적 효과는 농촌사회 내외부의 경제적 상황 등과 결부되어 쉽게 체감하지 못하거나, 기반조성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 사회경제적 효과를 체감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

「기반조성  $\Rightarrow$  농촌관광활성화  $\Rightarrow$  사회경제효과」로 이어지는 각 기능별 목적들이 농촌관광을 매개로 사회경제효과에 주는 경로 중,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의미가 있는 경로는 아래와 같다.

- 경관개선  $\Rightarrow$  지역경제 0.156(0.714\*0.696\*0.615\*0.512)
- 경관개선  $\Rightarrow$  일자리 0.197(0.714\*0.696\*0.615\*0.645)
- 생활편익  $\Rightarrow$  지역경제 0.196(0.659\*0.696\*0.615\*0.512)
- 생활편익  $\Rightarrow$  일자리 0.182(0.659\*0.696\*0.615\*0.645)

- 휴식공간  $\Rightarrow$  지역경제 0.123(0.559\*0.696\*0.615\*0.512)
- 휴식공간  $\Rightarrow$  일자리 0.154(0.559\*0.696\*0.615\*0.645)

분석된 결과는 경관개선과 생활편익시설이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에 휴식공간보다 높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관개선이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DoSuh(2016)의 논거처럼 휴식공간 중 근린공원, 다목적회관, 주차장 등의 시설이 외부방문객을 고려한 측면에서 접근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설  $H_5$ : 기반조성은 사회경제에 정(+)의 효과를 줄 것이다.」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다. 향토시장정비 등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마련할 수 있는데(Table 1참조), 가설  $H_2$ , 가설  $H_3$ 을 고려할 때, 농촌관광활성화를 매개로 한 효과만이 사회경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한다. 즉 방문객과 같은 외부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내 주민만을 수요로 하는 경우는 가설  $H_1$ 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생활편익은 증가되지만, 사회경제효과로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가설  $H_6$ : 농촌관광활성화는 삶의 질에 정(+)의 효과를 줄 것이다.」의 추정 값은 0.178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가 없다. 가설  $H_6$ 은 「가설  $H_3$ : 농촌관광은 사회경제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추정 값인 0.615보다 작으나 추정 값 0.000인 「가설  $H_4$ : 사회경제효과는 삶의 질에 정(+)의 효과를 줄 것이다.」에 비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설문대상자가 추진위원장, 리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사무장 등의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배제되어 있거나, 실제 운영단계에서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아 소득, 고용 등이 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농촌관광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등을 통한 외로움 등의 해소보다 청소 등의 직업적 의미로 바라보는 시선 등이 종합화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문은 추후 설문대상자들의 직업, 소득 등의 개인적 배경변수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읍면을 대상으로 설정된 농촌개발사업의 각 기능별 목적들의 유기적인 효과흐름을 살펴보면, 첫째 그 동안의 농촌개발사업 성과에서 소득, 고용과 같은 재무지표가 중시되어, 생활환경 개선이 주는 효과가 간과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Kim(2017)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서, 농촌개발사업이 올바르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생활환경개선이 주는 효과가 성과부문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한 KPI, BSC의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기반조성이 삶의 질에 주는 직접적인 효과는 0.358로 「기반조성⇒농촌관광⇒사회경제효과⇒삶의 질」의 효과인 0, 그리고 농촌관광이 삶의 질에 이르는 경로가 유효하다고 가정하는 「기반조성⇒농촌관광⇒삶의 질」에

이르는 효과인 0.124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는 그 어떠한 경우보다 기반조성이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에 주는 효과가 큼을 보여준다. 따라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앞서 추진되었던 사례들의 정보를 습득한 주민은 기반조성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Table 1에서 제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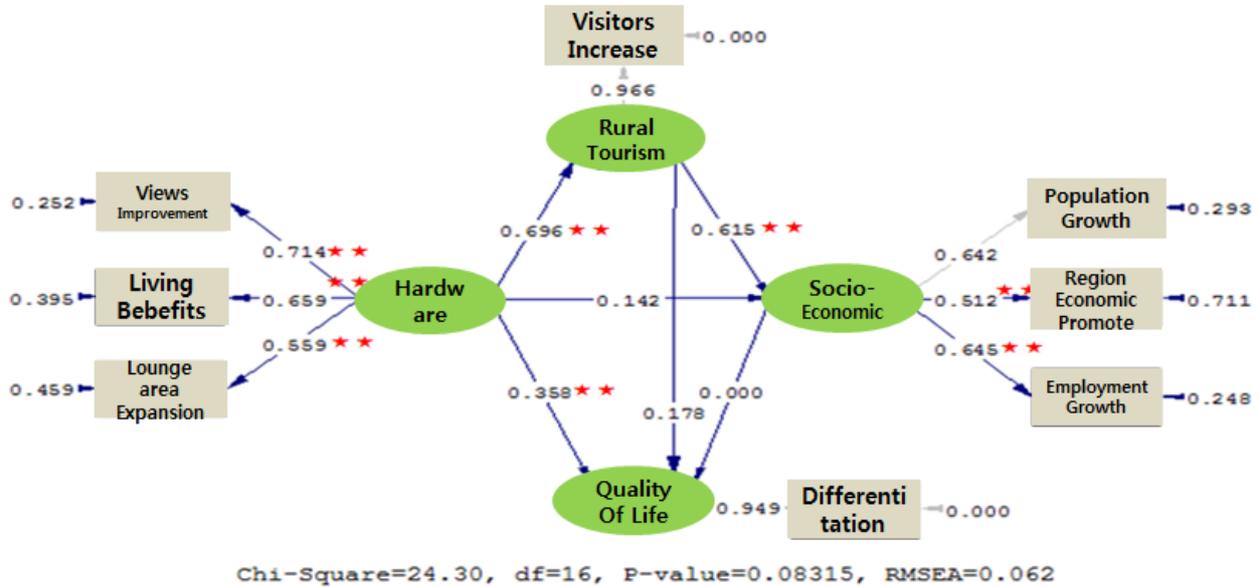


Figure 6. Result of the alternative model2 path analysis

Table 5. Fit results for 3 competing models

	$\chi^2$	df	RMSEA	GFI	AGFI	NNFI	CFI
Research Model	26.452	18	0.058	0.954	0.907	0.972	0.982
Alternative Model 1	25.013	17	0.058	0.956	0.907	0.971	0.982
Alternative Model 2	24.300	16	0.062	0.957	0.904	0.969	0.983
Hypothesis	Paths		Research Model	Alternative Model 1	Alternative Model 2		
$H_1$ (+)	Hardware → Quality of Life		.441 (4.066)**	.356 (2.714)**	.358 (2.661)**		
$H_2$ (+)	Hardware → Rural Tourism		.704 (8.603)**	.964 (8.418)**	.696 (8.445)**		
$H_3$ (+)	Rural Tourism → Socio-Economic		.716 (7.773)**	.712 (7.712)**	.615 (4.900)**		
$H_4$ (+)	Socio-Economic → Quality of Life		.108 (1.004)	.016 (0.118)	.000 (0.002)		
$H_5$ (+)	Hardware → Socio-Economic		-	-	.142 (1.091)		
$H_6$ (+)	Rural Tourism → Quality of Life		-	.169 (1.104)	.178 (1.232)		
$R^2$ of Rural Tourism Effect			0.495	0.482	0.485		
$R^2$ of Socio-Economic Effect			0.254	0.508	0.520		
$R^2$ of Quality of Life			0.245	0.248	0.232		

\*\*  $p < 0.01$  \*  $p < 0.05$  ( )은 각 추정치의 Z-value 값임.

는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등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정책적 프레임과 내용, 그리고 고용, 소득을 강조하는 정책에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Kim-Lee(2011), Choi(2014), Kim(2017)의 연구를 지지하며, 사업으로 마련되는 시설들이 농촌관광에 적합한가에 의문을 준다. 주민들의 시각에서 사업으로 마련된 시설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농촌관광의 주된 대상인 도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인가는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셋째, 「기반조성⇒농촌관광⇒사회경제⇒삶의 질」에 이르는 경로는 사회경제가 삶의 질에 주는 효과는 없지만, 「기반조성⇒농촌관광⇒사회경제」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기대심리는 매우 높음이 확인된다. 이 같은 결과는 주민의 기대와 다른 상황임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정책신뢰도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농촌개발사업을 통한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보다 농촌관광을 매개로 할 경우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민은 생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방문객 수를 관측변수로 농촌관광을 측정하고 있는데, 외부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 내부수요만으로는 사회경제 효과발생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농촌개발사업의 단계를 구분하고, 각 세부목적 간의 흐름을 살핀 결과 주민역량으로 논의되는 하드웨어선호 등의 문제는 농촌사회의 내부적 상황과 맞지 않거나, 사업으로 지원되는 목적과 시설의 내용의 불일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고용과 일자리 중심으로 성과평가가 논의되어 기반조성을 통한 생활환경의 효과가 제외되어 농촌개발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 V. 결론 및 시사점

그간의 성과논의는 주로 농촌개발사업이라는 투입변수와 고용, 소득을 성과변수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정책은 최종 목적달성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별 목적대로 수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며(Lee, 2010),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의 본질적 목적이 흔히 간과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읍면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농촌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단계를 기반조성, 농촌관광, 사회경제효과, 삶의 질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고, 각 단계별 효과의 유기적인 흐름을 공변량구

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민이 인식하는 농촌개발사업의 효과는 기반조성을 통한 삶의 질 효과가 다른 어떠한 경로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의 효과가 성과평가에서 간과되어 왔음을 보여주며, 농촌개발사업이 갖는 의미가 축소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민은 기반조성이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사회경제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매우 높는데 반해, 이로 인한 실질적 삶의 질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의 기대심리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주민의 집합적 효능감은 주민역량 발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Kwak, 2008: 64), 이와 같은 결과는 사업과 관련된 주민역량 발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정책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반조성의 효과는 가장 큰 경로효과를 보여주며,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현재와 같은 사업내용과 세부목적들은 오히려 주민의 기반시설선호를 강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은 체감할 수 있는 만큼의 사회경제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주는 시설 등의 환경정비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효과를 누리는 것이 보다 합당한 조치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마련된 시설의 유휴화 및 목적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상황은 기대와 달리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시설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전략적 상황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세부사업내용이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환경정비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방문객을 해당지역으로 이끌 만큼의 매력적인 환경조성이 어려운 것 일 수 있다. 또한 일부 성공사례를 제외한 다수의 실패사례 등과 같은 부정적 정보 등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투자보다 보다 명확한 실질 효과를 주는 공공적 성격의 물리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시설 유휴화 및 목적 외 다른 용도로의 활용은 농촌지역이 갖는 인구유출 등의 부정적 효과가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경제효과보다 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활용도 모색을 위한 합리적인 결과일 수 있다.

인간적 요인으로 농촌개발사업 성공요인을 설명하는 경우 주민의 하드웨어 선호, 시설 유휴화, 지원 시설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의 활용은 주로 주민역량 부족의 문제로 보고, 주민의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파악된다. 그러나 사업목적들이 주민 삶의 질에 이르는 성과과정을 분

석한 결과를 보면,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세부 사업내용이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부 방문객을 이끌 수 있는 만큼의 매력적인 환경조성이 어려울 수 있거나, 농촌지역이 갖는 내부 불경제의 문제가 보다 근원적인 문제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또 다른 개발환경에 주민의 보다 능동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시각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은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기반시설관련 세부사업내용이 방문객보다 주민정주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구성된 한계와 농촌사회 내부의 불경제와 같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농촌개발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현재와 같이 소득과 고용을 강조하기 보다 주민이 필요에 의해 사업내용을 구성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능동적인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주환경개선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한 외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의 마련은 결국 유희화와 의도하지 않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무적 성과를 강조하기보다 주민 스스로가 설정한 목적이 주된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상향식 사업의 근본방향으로 접근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그간의 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선도지구만이 농촌관광 등의 소득사업이 허용되어 왔다. 그리고 2019년부터 시행될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부사업내용은 모든 읍면소재지에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분석된 결과는 읍면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촌개발사업은 방문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이 오히려 정책만족을 낮추고, 주민참여 등의 사업성과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에서 읍면소재지에 속한 마을은 주변농촌마을에 비해 비교적 도시화가 진행된 곳으로서 농촌관광 등을 위한 소재가 마을보다 빈약한 것이 주된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읍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배후마을에 대한 기초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세부사업 내용에서 허용된 규정 등은 이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추진되었던 읍면소재지중비사업 대상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전국적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수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나, 설문부수가 그리 많지 않고, 추진위원장, 이장 등의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화는 검토가 필요하며, 성별 등의 개인적 배경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농촌중심지

로 배후마을 등에 대한 기초서비스 제공을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달리 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효과가 크고, 사회경제효과가 작았을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과 추진방법이 현재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향후 개선방향 설정과 농촌개발사업의 올바른 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1. An, J. C. and Lim, W. K.. 2014. Effects of the Social Activity and Leisure Activity of the Rural Elderly o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4): 189-210.
2. Bae, B. 201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Principles and Practicalities. Chungnam.
3. Bentler, 1980. Multivariate Analysis with Latent Variable: Causal Model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1: 419-56.
4. Chai, J. H. and Seo, J. W.. 2011. Analysis on the economic achievement factor of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in Jeollanam-do area.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3(3): 107-126.
5. Cho, J. S.. 2009. Territory-Specialized Rural Development Strategy in Case of the County Jangseong in South-Korea.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5(1): 79-102.
6. Choi, H. Y., Yoon, Y. S., Park, J. D.. 2014. The Effects of Selection Attributes of Agritourism as a Sextic Industry and the Preference Levels of Experience Programs on Behavior Intentions and Support Level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8(2): 185-198.
7. Choi, S.. 2014. A research on the Effect of Rural Development Project: the case study of Yongdusan Region.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18(3): 327-352.
8. Choi, Y. G. and Shin, H. Y.. 2016. In the age of change, the quality of life of the rural people is good?.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9. Do, J. Y. and Suh, J. H.. 2016. The Analysis of The Project Characteristics on a Comprehensive Village Development: A Case of The Rural Public Spaces and Facilities.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2(3) : 33-47.
10. Hair, J., Black, W., Babin, B., Anderson, R., and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Pearson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 NJ.
11. Jang, D. K. and Chai, J. H.. 2010.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Tasks of Farmers and Peasants in Jeonnam Area. Jeonnam Development Institute.
12. Jang, Y. L.. 2015.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Local Food Restaurant of 6th Industrial Field Appl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29(6).
13. Jöreskog, K. G. and Sörbom, D.. 1989. *LISREL 7: A Guide to the Program and Applications*, Chicago: SPSS. Publications.
14. Kang, S. J. and Shon, H. G.. 2015. Study on Determinants Affecting Satisfaction and Intention of Rural Tourism as a Fair Travel -focused on visitors of rural tourism villag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30(5): 313-333.
15. Kwak, H. G.. 2008. A Study on the Neighborhood Effect on Community Social Capital.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1(4): 59-86.
16. Kim, B. T. and Lee, S. W.. 2011.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ffect of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Ocean Policy Research*, 26(2): 75-104.
17. Kim, D. I.. 1982. Rural Development and Social Index. *Korean Journal of Sociology*, 16: 39-53.
18. Kim, D. S. and Lee, S. H.. 2011. Characteristics Analysis on Budget Distribution of Master Plan for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of Rural Villag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7(1): 13-27.
19. Kim, J. A. and Chai, J. H.. 2011. Analysis on the Impact of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on the Satisfactions and Incomes of Resident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4(5): 2671-2691.
20. Kim, J. S.. 2009. A Case Study on the Capacity Building Process in Rural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1(3): 103-121.
21. Kim, J. S., Park, S. H., Kim, Y. D. and Lim, J. E.. 2011. Evaluation of Rural Development Policy and New Directio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2. Kim, T. and Lowe, P., 2012. Operationalising the Concept of Neo-Endogenous Rural Development : An Alternative Method Responding to Globalisation. *Space and Environment* 22(1) : 114-160.
23. Kim, J. T.. 2015. The Meaning of Differentiation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and Its Implications on Resident Assess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1(2): 79-90.
24. Kim, J. T.. 2017. The Validity of the Policy Objectives as a Result of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7(2): 173-214.
25. Kim, T. G. and Lee, S. K.. 2014. A Study on Affecting Factor-Construction of Collaborative Planning Process and Effect on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0(2): 23-43.
26. K.F.N., Regional Foundation, 1st Regional Leaders Contest in Newspaper Article by Korea Farmers Newspaper in 2004.9.20.
27.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York: Guilford Press.
28. KRC. 2008. Analysis of project implementation effect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of rural village: Target area in 2005, Korea Rural Coporation.
29. Lee, H. J.. 2012. Differences in Performance of Rural Development Programs and their Implications o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2(2) : 7-48.
30. Lee, S. and Lee H.. 2011. An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Basic Settlement Area : In Terms of Income and Employee.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13(1): 81-112.
31. Lee, S. and Yun, S. D.. 2008. Quantitative Approaches for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 Evalu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4(4): 97-108.
32. Lee, Y. S.. 2010. A Study of Causality in the Policy Evaluation Based upon Evaluation Indicators.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10(3): 261-284.

33. MAFRA. 2017.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34. MAFRA. 2015.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35. MAFRA. 2013.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36. MAFRA 2010. A Study on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Food and Agriculture Ministry in Korea. Performance Way Consulting. N.T., Type of Business on Creating a Rural Villag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Newspaper Article by Najutoday in 2015.3.8.
37. Park. G. Y., Kim, P. K. and Kim, H. J.. 2013.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Key Performance Indicator for Tourism Development Policy using BSC.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5(8): 41-60.
38. Park, K., Park, Y. R. and Yum, Y. S.. 2015. The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Rural Elderly.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43(2), 200—227.
39. Park, S. H.. 2015. Business model of 6th industry of agriculture for Rural Tourism. *Journal of Rural Tourism*, 2291): 1-17.
40. Park. Y. and Seo. Jin., 2014.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Operational Performance of INVIL,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7(3) : 35-60.
41. Sim, J. H., Seong, J. I., Roh, S. C., Kim, G. S. and Kwon, I. H.. 2014. 2014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Regional Development Index (RD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42. Song, M. R. and Seong, J. I.. 2005.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grams and Residents'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7(4): 293-319.
43. Yang, S. I.. An Analysis on the Private School Policy Change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wing to Non-acceptance of the Policy Target Organizations.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4(1): 59-100.
44. Yang, w. S. and Choi, S. M.. 2013. Performance Analysis on Income Generation Works in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by Their Implement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9(1): 55-70.
45. Yoo, S. W. and Ryu, S. Y.. 2015. Enhancing the Value of Agriculture-Rural Communities by Activating the Sixth Industry: Focused on PR Communication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9(12): 77-90.
46. Yoon, J. S. and Park, E. B. 2012. A Factor Analysis on Resident's Satisfaction of the Efficient Rural Development Projects: Focusing on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Block Grants System in Buyeo,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9(4): 773-798.

- 
- Received 10 December 2018
  - First Revised 5 April 2019
  - Finally Revised 12 April 2019
  - Accepted 7 May 2019